



2025.10.16(목) 제25-77호

KOTRA 워싱턴 D.C. 무역관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## 주요 내용

###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규제) 중국의 희토류·배터리·반도체 등 전략품목 수출통제 조치 및 현지 반응 ..... 2
- 중국의 희토류·배터리·반도체 등 6개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전면 강화에 따라 핵심소재 수급 불확실성 확대 우려

### 경제통상 동향

- (연준) 美 연준 베이지북 발표…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 보여 ..... 5
- (탄소세) 트럼프 행정부, 국제해사기구(IMO)의 해운 '탄소세' 추진에 부정적 ..... 6
- (전기차) 미 전기차 보조금 종료 앞두고 사상 최고치 달성…단기 수요 둔화 전망 ..... 7

### 의회법안 동향

- 국방생산법, 청정 대기법 등 발의 2건 ..... 8

###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..... 9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..... 10

##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10.17(금)	• 9월 신규 착공 건수(Building permits)
10.20(월)	• 9월 미국 주요 경제 지표(U.S. leading economic indicators)
10.23(목)	• 9월 초기 실업 청구(Initial jobless claims)
10.24(금)	• 9월 핵심 소비자물가지수(Core CPI)

## ◎ 워싱턴 D.C. 포커스

### (규제) 중국의 희토류·배터리·반도체 등 전략품목 수출통제 조치 및 현지 반응

#### 1. 개요

- 희토류·배터리·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전면 강화
  -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·초경질재료·배터리·흑연·반도체 관련 장비 및 기술 등 6개 이중용도(Dual-use) 분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(10.9)
  - 동 조치는 공고 제55~62호 형태로 공표되었으며, 희토류 채굴·정련·가공·자석 제조 등 전 주기 공급망 단계 전반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
  - 주요 내용으로 ▲수출허가제 강화 ▲기술이전 제한 ▲군수 및 이중 용도 사용 불허 ▲역외적용(Extraterritorial Jurisdiction) ▲50% Rule(지분 기준 통제) 등을 포함
  - 중국 당국은 동 조치를 통해 전략자원과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고,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 제시
-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채굴 약 70%, 분리·정련 90%, 자석 제조 93%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우위 유지
- 희토류 및 초경질소재를 전략안보산업으로 분류하고, 자국 중심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영향력 제고 추진
- 동 조치를 미국의 對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및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며, 중국이 전략소재를 활용해 협상력 제고를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

#### 2. 상세 내용

- 수출허가제 도입·기술이전 제한·역외적용 등 전방위 통제 체계 시행

- (공고 제55호) 초경질재료(Superhard Materials)
  - 합성 다이아몬드(분말·단결정), 절단용 다이아몬드 와이어(Diamond Wire Saw), 연마휠(Grinding Wheel) 등 초정밀 가공용 소재·공구를 신규 통제 대상으로 지정

- 직류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장비(DC-PCVD)\* 및 관련 기술을 수출허가 품목으로 포함하여, 웨이퍼 가공·박막 공정 핵심 장비의 해외 이전 제한

\* Direct Current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: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박막 공정에 사용

- 중국은 초경질소재 관련 기술·장비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여, 플라즈마 기반 장비 분야의 대체 공급망 형성을 제한하도록 규정

- (공고 제56호) 희토류 생산 및 정련장비

- 희토류 정련·분리 장비, 금속제련 설비, 부유제·추출제 등 정련 공정의 핵심 기자재 및 화학 시약을 신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출관리 범위 확대
- 중국은 희토류 분리·정련·재활용 공정의 기술 자립도 유지 및 핵심 기술 보호를 목표로, 관련 장비의 해외 반출 제한과 개별 허가제 적용 강화

- (공고 제57호) 중·중후(重)희토류 원소

- 흔뮴(Ho), 에르븀(Er), 유로퓸(Eu), 이테르븀(Yb), 툴뮴(Tm) 등 5개 중희토류 원소 및 합금류(Fe, Cu, Bronze 등) 등을 신규 통제 대상으로 지정
- \* 중국은 '25년 4월 일부 중희토류 품목(자성 소재·분말·합금 등)을 통제 대상에 포함
- 중희토류 기반 자석·반도체·방산용 핵심소재는 개별 수출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, 군수 및 전략산업 관련 용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

- (공고 제58호) 리튬이온 배터리 및 인공흑연

- 리튬이온 전지(셀·모듈·팩)와 인공흑연(양극재·음극재) 등 주요 소재 및 관련 생산장비를 포괄적인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 범위 확대
- 에너지저장장치 및 고용량 배터리용 소재·기술 이전에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, 전지 소재의 해외 이전 및 기술 확산을 제한하도록 규정

- (공고 제61호) 희토류 및 자석 관련 역외적용

-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, 중국산 희토류 함량이 0.1% 이상 또는, 중국 기술·장비를 이용해 제조된 경우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
- '50% Rule(지분 기준 통제)'을 신설하여 수출통제 명단(Entity List) 등재 기업이 5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동일한 수출 제한을 적용받도록 규정

- 군수·이중용도 목적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, 수출자는 최종사용자 정보·사용 목적 및 ‘수출통제 준수확인서(Compliance Statement)’ 제출 의무 부과

- (공고 제62호) 희토류 관련 기술이전 제한

- 희토류 채굴·정련·금속제련·자석 제조·재활용 등 전 공정의 설계·운영·유지보수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
- 중국 국적자의 해외 희토류 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 파견은 정부 사전 승인 대상으로 지정, 기술 협력·유지보수 등도 유출 우려 시 제한 가능하도록 규정

### 3. 현지 반응

□ 미국 정부 강경 대응, 산업계는 핵심소재 수급 불확실성 확대 우려

- (정부) 미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·핵심소재 수출통제를 “과도하고 비합리적 조치”로 규정하고, 추가 100% 대중 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 방침 시사
- (기관) CSIS 등 주요 기관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
- 미 국방산업은 핵심 희토류·자석 소재의 80%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, 동 조치로 인한 방산용 소재 조달 차질, 비용 상승 및 공급망 병목 심화 우려
- 미국의 국방생산법(DPA) 기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, 신규 정련시설 가동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, 단기적 대체 공급망 구축의 한계 지적
- (업계) 반도체·이차전지 업계는 핵심소재 수출허가 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비용 상승 우려, 주요 기업은 공급선 다변화 대응 추진
- 희토류·리튬 등 핵심소재의 수출허가 심사 지연과 공급 제한으로 반도체·이차전지·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일정 차질 및 비용 상승 우려 제기
- 미 주요 제조업체는 소재 재고 확보, 대체 소재 개발, 배터리 기술 내재화 등 대응책을 추진하며, 중장기적으로 공급선 다변화 및 기술 독립 강화에 주력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▪ 자료원	중국 상무부( <a href="#">10.9</a> ), CSIS( <a href="#">10.9</a> ), White & Case( <a href="#">10.13</a> ) 및 현지 언론 종합



### (연준) 美 연준 베이지북 발표…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 보여

- (개요) 美 연준, 연방준비제도 12개 지역을 분석한 베이지북\* 발표(10.15)
  - 연준은 최근 미국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
  - \* 미 연준이 연 8회 12개 지역의 경기·물가·고용 동향을 종합해 통화정책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기 보고서
  - 다만, 소비지출은 소폭 둔화된 반면, 관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
- (상세)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및 이민 규제에 따른 인력난 지속
  - 연준 12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, 5개 지역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 유지, 4개 지역은 소폭 둔화세를 보이며 지역별 경기 흐름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.
  - 다수 지역의 연준은 관세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비 상승을 보고했으며, 일부는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했으나 일부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분석
  - 이민 규제 강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 숙박·농업·건설·제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, 노동 공급 제약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
- (반응)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대되었으나, 셧다운 장기화로 정책 불확실성 증대
  -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으나,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
  - 일부 지역 연준은 향후 6~12개월 내 수요 회복 기대를 언급했으나, 셧다운 장기화가 경기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
  - 셧다운으로 인한 주요 경제통계 발표 지연으로, 경기 및 금리 인하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■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김기범

■ 자료원 CNBC (10.15) 블룸버그 (10.15), 로이터 (10.15)

## (탄소세) 트럼프 행정부, 국제해사기구(IMO)의 해운 ‘탄소세’ 추진에 부정적

- (배경) 국제해사기구(IMO),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예정

- 국제해사기구(IMO), 글로벌 탄소 감축 정책인 ‘넷제로(Net-Zero) 프레임워크’의 일환으로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세(Carbon Tax) 시행 추진

- \* 넷제로(Net-Zero) 프레임워크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에서 해운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초로 승인('25.4)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규제 체계

- 국제해사기구는 임시 회의에서(10월 14일~17일, 런던) ’27년 탄소세 시행\*을 목표로 넷제로 프레임워크 탄소세\* 최종 규칙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원국의 투표 진행 예정

- \* ’25년 말 탄소세 채택 → ’27년 3월 발효 → ’28년부터 벌금 징수 및 인센티브 자급 예정

- (상세)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세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지국에 보복 조치 경고

- 국제해사기구 탄소세가 채택될 경우, 5,000톤 이상의 원양 선박 대상(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%를 차지) 탄소 배출량 기준, 톤당 100달러에서 380달러의 벌금 부과 예정 \*

- \* 연도별로 설정된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(GHG Fuel Intensity, GFI) 목표를 미충족 시 벌금 부과, 탄소세는 선박 회사가 IMO 넷제로 펀드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간접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징수

-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세를 강하게 반대하며, 규칙 채택 절차를 기존의 ‘암묵적 수용(tacit acceptance)\*’에서 ‘명시적 수용(explicit acceptance)\*\*’으로 변경을 제안하며 시행 지연 시도

- \* 전체 회원국의 1/3, 또는 세계 상선의 절반이 반대하지 않을 시 자동 채택

- \*\* 각국이 표결 후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규제가 발효

- 또한, 탄소세 지지국에 대해 항만세, 비자 제한,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, 국제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최종 실행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

- 해운 업계 전문가, 브라질과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(68개국), 기후 옹호 단체는 넷제로 프레임워크(탄소세)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추진 강조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-------	------------------

| ▪ 자료원 | 블룸버그([10.16](#), [10.14](#)), 폴리티코([10.16](#)) |

## (전기차) 미 전기차 보조금 종료 앞두고 사상 최고치 달성…단기 수요 둔화 전망

### • (개요) 연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3분기 판매 사상 최대 기록

-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3분기 43만 8천 대를 기록,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, 전체 승용차 판매의 약 11%를 전기차가 차지(이전 최고치는 8.7% 선)

- 현지는 9월 30일부로 종료된 연방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(신차 최대 7,500달러, 중고차 최대 4,000달러) 만료를 앞두고 전기차 신규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

### • (상세) 보조금 종료 후 EV 평균 판매가 상승, 4분기부터 단기 수요 둔화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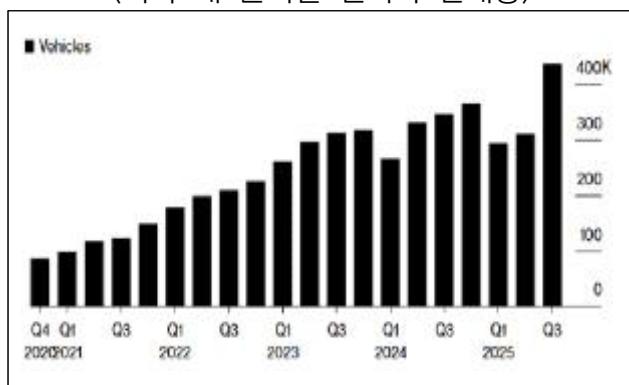
- ‘One Big Beautiful Bill (OBBB) 법’ 시행으로 인해 청정차량 관련 연방 세액공제 프로그램(IRC §30D, §25E, §45W 포함)이 2025년 9월 30일부로 종료

- 3분기 전기차 판매가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,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41%로 하락, GM은 최근 쉐보레 Equinox와 Bolt 모델 판매 호조로 15%까지 점유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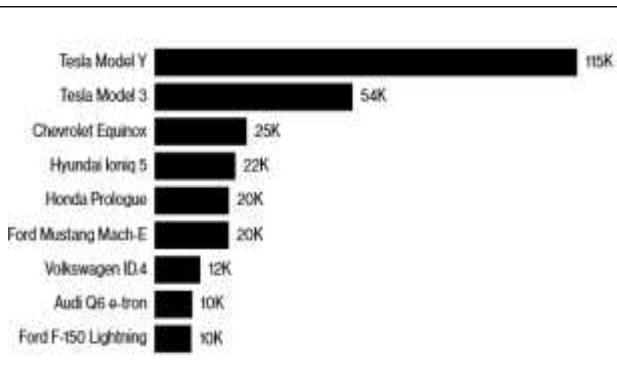
- 보조금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2030년 기준 48% 전망에서 27% 전망으로 큰 폭으로 하락 조정될 것으로 예상

- 전문가들은 연방 보조금 종료가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제약하지만, 배터리 원가 하락과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이 향후 시장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

〈미국 내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〉



〈미국 내 주요 전기차 판매차종〉



[자료: Cox Automotive, 블룸버그 인용]

▪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블룸버그([10.16](#)), IRS 청정차량 FAQ ([링크](#))

## 주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美 국방 생산법 (10.14)	H.R.5760 (하) (10.14)	Elise Stephanik (공)	<p>〈농업 안전장치 및 안보 증진법 (Promoting Agriculture Safeguards and Security (PASS)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950년 제정된 국방생산법(Defense Production Act) 개정으로 美 농무장관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(CFIUS)에 포함시키는 법안</li> <li>외국 기업(식품 대기업, 농업기술·생명공학 기업 등)이 미국 농지, 식품가공시설, 농업 바이오 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, CFIUS의 강제 심사 대상</li> <li>국가안보·식량안보 차원의 외국 자본 유입 통제 강화 목표</li> </ul>
청정 대기법 (10.14)	S.3007 (상) (10.14)	Cynthia Lummis (공)	<p>〈디젤 트럭 배출가스 제어장치 법 집행 금지 법안 (The Diesel Truck Liberation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정대기법(Clean Air Act)상 디젤 트럭 배출가스 제어 장치의 설치·인증·유지 관련 법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</li> <li>촉매변환기, 센서, 필터링 시스템 등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생산·수출하는 해외 제조사에 영향 예상</li> </ul>

\* 미국 동부 시간 10월 16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##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<u>Trump Says He Will Meet With Putin in Budapest to Discuss End to Ukraine War</u></a> (트럼프와 푸틴, 부다페스트에서 회담)</p> <p>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 하기로 결정,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'토마호크' 미사일 공급 결정 이행 여부 미정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<u>Chamber of Commerce sues Trump to block \$100,000 fee for H-1B visas</u></a> (상공회의소, H-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도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제소)</p> <p>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 스폰서 비자인 H-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 주장, 기업 단체 중 비자 정책 관련 첫 소송</p>
The 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<u>China's Rare Earth Restrictions Aim to Beat U.S. at Its Own Game</u></a> (중국, 희토류 규제로 미국 통상 규제 대응)</p> <p>중국이 세계 공급망을 무기로 희토류 및 관련 기술·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부과, 미국의 통상 규제에 비해 더 큰 레버리지로 작용 가능</p>
Reuters	<p><a href="#"><u>G20 vows to keep focus on developing countries' debt issues</u></a> (G20, 개발도상국 국가 부채 문제 집중 약속)</p> <p>2025년 IMF·세계은행 연례 회의에서 만난 G20 국가 재무장관들, 중저소득국들이 직면한 높은 자금 조달 비용과 부채 부담에 대응 노력 선언</p>
USA Today	<p><a href="#"><u>The job market is rough, but there are some bright spots. These sectors are still hiring</u></a> (얼어붙은 일자리 시장, 여전히 채용중인 산업은?)</p> <p>2025년 8월 보건의료, 사회복지, 여가업 등 분야 채용이 증가하였으나 미국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타 분야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증가분을 대부분 상쇄</p>

\* 미국 동부 시간 10월 16일 16시 기준

## 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### 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경제통상리포트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5-38	<a href="#">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</a>	2025.10월
US25-37	<a href="#">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</a>	2025.10월
US25-36	<a href="#">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</a>	2025.09월
US25-35	<a href="#">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</a>	2025.09월
US25-34	<a href="#">'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</a>	2025.09월
US25-33	<a href="#">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5.09월
US25-32	<a href="#">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('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)</a>	2025.08월
US25-31	<a href="#">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5.08월
US25-30	<a href="#">미 풀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</a>	2025.08월
US25-29	<a href="#">美 미소기준(De Minimis)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5.08월
US25-28	<a href="#">美 정부 『AI 행동계획』 행정명령 발효 -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5.08월
US25-27	<a href="#">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5.07월
US25-26	<a href="#">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</a>	2025.07월
US25-25	<a href="#">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(Genius Act)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5.07월
US25-24	<a href="#">트럼프 행정부,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</a>	2025.07월

### 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3 (2025.8.26.)		
코인사-22 (2025.5.13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jwshim@kotra.or.kr	
	shim.nature@kotra.or.kr	+1) 202-857-7919